

중국 산둥성 방직공업, 기술개조로 비약적 발전

중국에서 산둥성(山東省)은 손꼽히는 방직공업지구의 하나로서, 산둥성의 전 방직공업의 총생산액은 중국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1999년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세우고, 국채(國債)특정항목자금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4년간 산둥성의 방직공업에는 총 36건의 기술개조 프로젝트를 준비하였고, 현재도 이들 프로젝트는 추진되고 있다. 이들 중 15개 프로젝트는 완료되어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생산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채에 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은 산둥성 방직공업의 구조조정과 방직공업 전체의 레벨·업을 촉진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서는 ①양호한 경제효과의 실현 ②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의 대폭적인 증가 ③기술설비의 참신한 수준향상 ④제품레벨의 비약적인 스텝·업 ⑤관리·기술·개발·경제효율이 향상된 많은 중견기업의 등장 -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효과면에서는 판매고,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의 산둥성 섬유공업의 판매고는 1,107억위안(元), 세차감전이익(稅差減前利益)은 87억7천만위안, 세차감후이익은 50억7천만위안으로 1999년에 비하면 각기 2.8배, 3.5배, 2배로 되고 있다.

중국 방직공업통계에 의하면 산둥성 방직공업의 코스트이익율(利益率), 전종업원 노동생산율, 경제효율 등의 종합지수가 각기 전국 제3위로 되었다.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의 산둥성 방직·복장품의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은, 1999년의 6억5천만달러와 비교하면 9배로 증가

한 58억6천만달러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산동성은 중국 섬유제품의 생산이나 수출면에서 중요지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 설비의 수준향상도 뛰어나다. 산동성 방직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코머시설은 494대로서 성내 방직업계의 고성능 설비 점유율이 35%에 이르러 1999년에 비하여 3%포인트 증가하였다.

국채자금을 사용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고성능 설비의 보유 비율은 이미 5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들 보유수준은 세계의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상당히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품질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말에 산동성 전체의 코머사 비율은 25%, 노트리스(knotless)사의 비율은 50%에 달하여, 1999년 말과 비교하면 코머사는 10%포인트, 노트리스사는 15%포인트 증가하여 중국 전체의 평균수준에 달했다.

셔틀리스 직기(shuttleless loom)로 생산된 직물의 비율은 35%로 1999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증가하여, 중국 전체의 평균인 31%를 웃돌게 되었다. 기술개조가 끝난 기업에서는 셔틀리스 직기가 평균 80%이상이며, 화합섬직물에서도 차별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관리능력, 기술력, 개발능력, 경제효율이 높은 중견기업이 많아진 것도 특징이다. 국제기술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산동성의 방직업의 실력이 증대하여, 산동덕면집단유한공사(山東德綿集團有限公司)와 같은 대기업이 탄생하였다.